

나를 알아주는 대학  
신라대학교

---

# 2021 신라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

제출일 : 2021년 11월



# 제 IV 장

## 종합 및 논의



## 1

## 대학이념 및 경영

## ■ 평가결과 요약

■ 1영역 대학이념 및 경영에 대한 평가결과 대학경영, 대학재정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 주요 현황

-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글로벌 지성인, 창의적 전문인, 도전적 감성인’이라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6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역량은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STEP)’을 통해 환류함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생성공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과 6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23개 프로젝트별 실행과제로 구성된 중장기발전계획 ‘학생성공 신라2030(Ver 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함
-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은 62.6%, 세입 중 기부금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은 0.5%로 기준값을 충족하지만 세입 중 법인전입금의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은 0.38%로 기준값에 미달하고 있음.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반영함.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립학교법’ 및 ‘감사관련규정’에 따른 내·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결산공고 및 인트라넷에 공개함

## ■ 강점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탁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구성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 도출을 위해 노력함
- 매년 통합적 질 개선 보고서 작성을 통해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함
-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대학구성원 대표로 구성된 대학재정 TF팀을 운영하고, 예산 집행이 완료된 이후 결산분석 자료 작성을 통해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
- 대학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인트라넷에 공개하여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함

## ■ 개선점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대학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학 생존전략 모색이 미흡함
- 대학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대학재정의 제약으로 성과급 지급이 미흡함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으나, 대학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 계획이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함

- 입학정원의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다양한 수입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법인 전입금 확충을 위한 노력과 수익성 확대 다각화가 필요 함

## ■ 향후 발전방안

- 대학 인재상이 요구하는 다양한 핵심역량을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특정 핵심역량에 치우친 학습역량 프로그램의 역량별 다양화가 필요함
-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별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대학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프로세스 고도화가 필요함
-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관련 절차의 공식화 기능이 필요 함

## 2

## 교육

### ■ 평가결과 요약

- ▣ 2영역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 주요 현황
  - 교육목표 달성과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교양교육 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으로 적절하게 편성·운영됨. 기초필수교양 12과목은 세계화, 실용화, 인간화 영역, 선택교양은 자유교양, 화랑교양, 심화교양 영역으로 분리되어 다양한 교과목이 균형 있게 개설됨. 전공역량 중심의 전공교육과정이 구성되어 학과의 전공역량이 직업 및 진로와 연계 되고 학과별 직업 및 진로 지정과목과 공통과목이 편성·운영됨
  - 수업 운영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강의계획서 입력, 수강신청, 성적처리 등의 절차가 적절하고, 강의평가가 강의 유형별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학생에게 공개되며, 강의평가 하 위 교수자에 대한 강의 개선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됨
  - 성적관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학사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학사경 고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교수·학습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조직이 교수 지원부, 학습지원부, MOOC 및 이러닝지원부 등으로 구성되어 전임 연구·개발 인력이 확보 되어 교수와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 강점

- 부·복수·다전공 이수율의 최근 3년간 평균은 12.6%로 높은편이며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을 활성화하고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점을 조정하여 운영함
- 매년 산업체 대상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 ‘교육질개선및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수업평가 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학과별 개선 방안 및 부서별 조치 사항 이행 절차를 통해 수업의 질 개선을 모색함

## ■ 문제점

- 교양교육과정의 강좌당 평균 수강생이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필수교양과목과 비교하여 선택교양 과목의 강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토의 토론 수업 등 학생참여형 수업방식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양과목의 강좌별 규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및 사회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고 모든 전공교육과정에 캡스톤디자인 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나,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의 과목 운영이 다소 미진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교수·학습지원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담연구원의 충원이 필요함

## ■ 향후 발전방안

- 교양 및 전공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전임교원 강의책임학점은 시수(9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강의 시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교양강좌 분반 기준과 전공강좌 분반 기준 70명 이상, 선택교양 폐강 기준 50명 미만과 교양필수 폐강 기준 35명 미만은 기준이 너무 높으므로 기준을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강의평가 하위 교수자를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등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성적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수강 이수 기준을 C+에서 D+로 조정하고 재수강 횟수나 학점 등을 제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임 연구·개발 인력의 잦은 이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의 규모나 교수와 학생수에 적합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의 확충 및 보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 교직원

### ■ 평가결과 요약

■ 3영역 교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교수, 직원의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주요 현황

- 교원의 인사제도는 직제별로 별도의 '교원인사관련규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정년보장 및 재임용 등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음. 교수업적평가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의 영역으로 세분하고 주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기준을 별도로 정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교원 포상, 연봉책정, 연구년제 교수 선발 등에 활용하는 등 교원의 인사관리 제도는 적절함. 다만, 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원업무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교육지원처에서 전담하여 효

올적관리관이 되도록 관리부서 변경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3년평균 기준값을 충족하지만, 향후 수업질 개선을 위해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교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적정함.
-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은 1,482천원으로 기준값 1,000 천원을 충족함. 교원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도 참여율이 높고 적절한 예산 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적정 수의 조교를 확보하고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등에 적의하게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학의 교원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지원 실적이 아주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연구년제는 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정에 근거해 매학기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나 전임교원수와 대학 규모를 고려할 때 실시실적이 저조한 수준이고 매년 감소 추세이므로 연구년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직원 1인당 학생수의 최근 3년간 평균은 56.1명으로 기준값 70명 이하를 충족함. 비정규직 비율은 33.1%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의 직급별 비율은 적정한 분포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부서와 기관별로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업무평가 등 직원의 인사제도는 '인사관련규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정되어 있으므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음. 직원의 업무성과평가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승진, 전보, 교육, 포상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직원의 인사제도는 노사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수시로 규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수정·보완 시에는 직원노동조합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과 직원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조정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의 보수는 직급별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원의 보수는 정규직 직원의 보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은 적정하며, 직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높고 적정 수준의 예산 집행 실적이 있음.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요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강점

- 교원과 직원의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정책결정 과정과 인사제도 운영 등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어 구성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이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활발하고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의 대학원 진학 시 학비를 일부 지원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에 활용성이 큰 우수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 문제점

-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은 재임용과 승진 등 인사제도만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음
- 비정년트랙교원의 경우 학위, 역할, 직무난이도와 기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1, 2분위 조교수의 경우 다소 낮음
- 강사를 위한 연구실 등을 마련하여 시간강사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나, 다소 미약함
- 우리 대학은 직원들의 부서별, 직급별 평가를 통해 합법적인 승진 및 직원 배치를 하고 있으나 직원 개인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제도가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아 개정이 필요함
- 우리 대학은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반영의 체계가 필요함
-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업무와 인사에 적용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화가 요구됨

## ■ 향후 발전방안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교수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학의 교원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지원 실적이 아주 미흡한 수준이고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연구년제는 규정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전임교원수와 대학 규모를 고려할 때 실시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고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코로나-19 종식이후 교직원의 업무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증대 필요

# 4

##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 ■ 평가결과 요약

- ▣ 4영역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시설, 학생지원의 2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함
- ▣ 주요 현황
  -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및 실험·실습실 면적은 기준값을 충족하고,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도 기준값을 충족함. 냉·난방과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부 노후 시설의 경우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개선할 계획임.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교육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학생에게 안전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함.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은 캠퍼스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었으며 학생 만족도를 감안하여 개선하고 있음. 도서관은 적절한 열람실 환경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시설을 보유함
  -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STEP)을 통하여 학생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에 관한 체계가 잘 정비되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학생지원 프로그램은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환류함. 학생복지처를 중심으로 학생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안전한 학생활동이 되도록 지도함

- 장애학생 수가 타 대학에 비하여 많으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학생 지원 체계가 우수함

## ■ 강점

- 캠퍼스의 특성을 살려 건물별로 다양한 학생 복지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함
- ‘학생성공 신라2030’의 학생성공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체계를 제공함
- 입학전형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장애학생을 별도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 체계가 우수함

## ■ 문제점

-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일부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로 인해 개선 및 리모델링이 요구됨
- 자료구입비가 3년평균을 충족하지만 2021년의 경우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창업지원단과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수집단학생 이해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어 향후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 향후 발전방안

-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가 계열별 편차가 크므로 조정이 필요함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의 꾸준한 기준값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가 필요함
- 학생상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상담센터의 정규직 전문상담원 보강과 상담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동아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현재의 학생지원처의 업무지침을 보완, 규정화 하여 연합동아리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 추세이나 문화체험 중심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학습지원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관련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학생들 등교 일수가 줄어들어 학생 지원 경비가 줄어들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증대가 필요함

# 5

##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 ■ 평가결과 요약

- ▣ 5영역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학성과, 사회적 책무의 2개 부문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함

### ■ 주요 현황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연구 실적은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기준값을 충족함
-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취업률이 61.8%로서 기준값을 충족함
- 교육만족도 조사를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환류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학칙' 및 '봉사교과목 운영내규'를 통하여 사회공헌센터가 기획,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음
- 자원공유형 산학협력 생태계(SHARE)를 조성하기 위하여 K-MOOC 강좌를 공개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도서관, 기독교 박물관, 창업공간 등 캠퍼스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 개방하고 있음
-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 수입,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소프트웨어 등록, 학교기업 '프렉스매스'의 상표 출원 등 소기의 성과를 내고있음

### ■ 강점

- 전임교수의 연구 실적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생 창업을 위한 청년창업 인턴십,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대학의 지식과 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문제점

- 연구성과결과는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꾸준한 연구성과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
- 취업률이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인 55%를 상회하고 있으나, 동남권에 4년제 대학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학과(학부,전공)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취업률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가족회사의 경우, 기 체결된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협정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향후 발전방안

-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환류함으로써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도 점수가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환류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 및 국외 봉사 활동이 활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재정 지원 필요